

초대詩

전 · 현직 하나로

— 최인철 회원 (강원경우회장)

먼산
아지랑이
봄의 전령되어 봄바람 타고
꽃망울진 개나리. 매화 손 잡으려다
봄을 시샘하는 하얀 눈 내려
돌담 뒤에 숨어
잠시 가뭄 습
물아 쉬고

말없는
청산에 누운 잔설은
계절의 감각을 기억할 수 없어
봄벌에 녹아 질펀하게 눈물만 흘리고

여기 저기서 싸늘한 바람 비집고
봄의 여신이 살며시
오고 있네

따사로운
어느 봄날 민중의 지팡이 한자리에서
잔을 치켜들고! 전.현직/하나로! 외쳐 보지만
수줍고 어색함은 여지없이 들끓나
그간 따로 국밥 있었나 하는
느낌 지울 수 없네

시간이 지나
우리 모두 말각속에 빠진대해도
어색함을 떨쳐 버리고 서로는 서로를 보듬어
어제보다 나은 빗처럼 환한 내일 위해
외치고 또 외쳐야
하리라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라면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에

목이 마를적에
무엇인지 알고도 모르고도
도친의 물을 함께마신 형제들 이기에
서로 보듬고 열싸 안아야
하리라

얼마쯤
세월이 지나
전직이란 굴레가 저절로 씌워지고
한동안 밤의 암흑을 이정표 없이 걸어가며
그때쯤이면 무궁화 동산의 아늑함이 그리워지며
새삼 눈사울도 쿡쿡도 켜~잉 하리라
그것은 누가 뭐래도 한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이기에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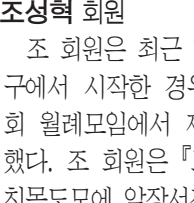
김호은 회원(前 경찰청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자유대한수호 국민운동 본부에서는 오는 5월 11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전우회관 2층에서 핵 전술전략분야의 권위자인 장준익 박사를 초청해 「북한의 핵 보유선언과 한국의 위기」란 주제로 강연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서로에게 소식을 전합시다

동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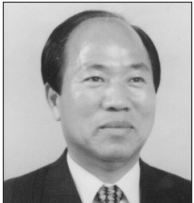
◆ 강대형 회원 (前 치안감)  사법 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하고 경찰에 투신, 경기 분당서장, 서울 방배서장, 경찰청 보안국장을 거쳐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마지막으로 현직에서 물러났던 강 회원은 최근 법무법인 「정평」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을 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광빌딩 7층) ☎ 02-597-0680

◆ 차세룡 회원 (인천경우회 부회장)  차 회원은 최근 경기도 耳順 테니스 연맹이 주최한 제 1회 전국 耳順 테니스 대회 古稀 2부에 인천시 대표로 출전하여 30여개 팀 중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차 회원은 55년의 테니스 경력에 제 12회 문화관광부 장관배 테니스 대회 우승, 제 40회 전국 耳順 대회 준우승 등 30여회의 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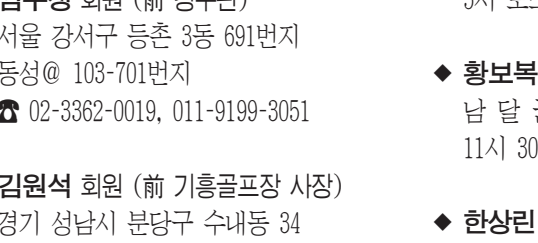
◆ 조성혁 회원  조 회원은 최근 현직시절 초임을 대구에서 시작한 경우들의 모임인 구인회 월례모임에서 제 4대 회장에 취임했다. 조 회원은 「모임의 발전과 회원 친목도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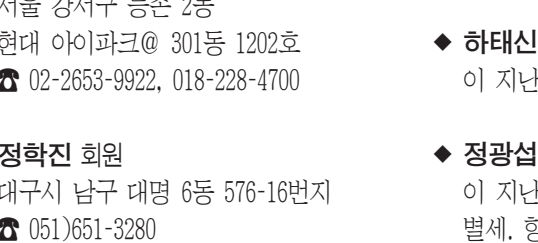
◆ 김일기 회원  김 회원은 최근 서울 홍익대학교에서 한국서화작가 협회 회원전을 가졌다. 김 회원은 오는 7월에는 공모전에 참가할 예정이다.(변경된 주소:서울 중랑구 목 2동 237번지 7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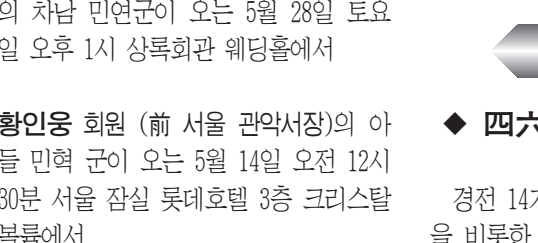
◆ 전경수 회원 (한국마약범죄학회장)  전 회원은 최근 법무연수원,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자신이 최근 출간한 마약범죄학 전수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전 회원은 지난 4월 중순경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약학, 정신의학, 법학을 응용해 저술한 마약범죄학(1권~5권)출간 기념회를 가진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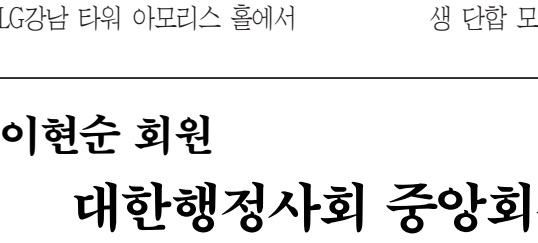
◆ 성한복 회원  부산경우회 자문위원과 한국경우문예회 부산 및 경남 지부장을 맡고 있는 성 회원은 최근 녹색시문학 2집을 발간해 전국 회원 및 문학단체에 배포했다. 성 회원이 발간한 이번 2집에는 충주 미륵대원지 편을 비롯해 18편의 글들이 게재되어 있다.

◆ 임무성 회원 (前 경무관)  서울 강서구 등촌 3동 691번지 동성@ 103-701번지 ☎ 02-3362-0019, 011-9199-3051

◆ 김원석 회원 (前 기흥골프장 사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4 양지마을 금호@ 111동 1502호 ☎ 031-718-7267

◆ 박창길 회원 (前 경남 산청서장)  서울 강서구 등촌 2동 현대 아이파크@ 301동 1202호 ☎ 02-2653-9922, 018-228-4700

◆ 정확진 회원  대구시 남구 대명 6동 576-16번지 ☎ 051)651-3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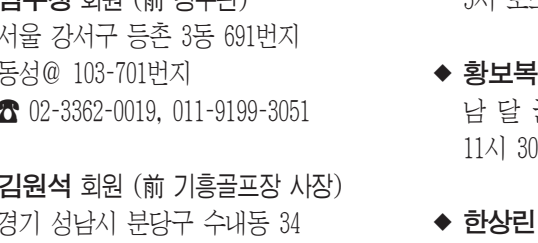
◆ 김우현 회원 (경우산악회장, 前 총경)  의 차남 민연군이 오는 5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상록회관 웨딩홀에서

◆ 황인웅 회원 (前 서울 관악서장)의 아들 민혁 군이 오는 5월 14일 오전 12시 30분 서울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 이근표 회원 (서울 공항공사 사장)의 장남 원재군이 지난 4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LG강남 타워 아모리스 홀에서

최종락 회원 搜友會長에 再選

 수사간부 출신들의 모임인 搜友會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2시 서울 경우회 중앙회 사방방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임기가 만료된 최종락 회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으로 재선출하는

 한편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측면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최종락 회장, 구홍일 경우회장, 이인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시영 경찰청 수사국장, 주상용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비롯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는 현직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선배 경우들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기로 결의하는 한편 경우회 활성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주소 변경

◆ 조선훈 회원 (충남경찰청장)의 차남 한웅 군이 지난 4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 황보복수 회원 (前 경북경우회장)의 장남 달 군이 지난 5월 1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포항 목화웨딩홀에서

◆ 한상린 회원 (前 평택서장)의 아들 지훈 군이 지난 4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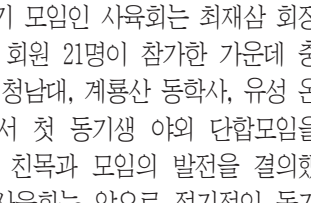
부 음

◆ 하태신 회원 (前 경기경찰청장)의 부인이 지난 4월 19일 지병으로 별세

◆ 정광섭 회원 (강원경찰청장)의 모친이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경 노환으로 별세. 향년 83세

◆ 최귀연 경감 (경찰청 외사관리관실)의 부친이 지난 4월 17일 오후 1시 30분경 별세. 향년 81세

모 임

◆ 四六會 (경전 14기 모임)  경전 14기 모임인 사육회는 최재삼 회장을 비롯한 회원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북 청원의 청내대, 계룡산 동화사, 유성 온천 등지에서 첫 동기생 야외 단합모임을 갖고 회원 친목과 모임의 발전을 결의했다. 한편 사육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동기생 단합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현순 회원 대한행정사회 중앙회장에 再選

 대한 행정사회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현순 회원(중앙회 이사)이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전국 대한 행정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제 8대 회장으로 재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대한 행정사회는 전직 공무원 7천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중 경우회원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기술 행정사로 분류, 행정사법 규정에 따라 각종 민원서류 및 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대행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이 회원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窓邊〉에세이

成形手術과 觀形察色

滿隱 金 今 道 (중앙회 부회장)

 고 “인상이 좋고 멋 있다”느니 “표정이 밝다”는 등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대통령집권 후에 “확실히 달라진 것은 눈꺼풀과 얼굴표정이다”라는 말들이 오간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얼굴표정이 항상 밝고 좋으면 백성들의 마음도 한결 편안하고 즐거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國泰民安 與民同樂이라 하지 않았던가?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위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上眼瞼弛緩症”으로 시야가 가려 눈을 치켜뜨거나 고개를 들어야하

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醫 적인 수술임에도 ‘美’적으로 접근시켜 관심이 많았지 않나 싶다. 지난 민주당대통령후보 시절에 “이마의 굽은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 보톡스 주사를 맞았다. 그런데 시술 후 주름이 쳐져 눈이 감기는 현상이 있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때를 떠올려 더욱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대통령의 눈꺼풀 시술이후 주식의 종합지수가 1000포인트 고지를 탈환했고, 집권 후 바닥이었던 경제는 소비심리가 술술 살아나 경기도 풀리고, 경제성장곡선은 상향곡선을 긋는가 하면 대통령의 인기도 상승하는 등의 평가가 언론에 보도되고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

니, 집권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3년의 집권기간 동안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로 들어선 것 같다. 더욱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참모들이 여태까지 한번도 이룩하지 못한 성공한 대통령의 모습을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시대’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리 남기도록 하기 위해 고군분투와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5. 3. 9. 신문지상에 커다랗게 실려 있는 「투명사회 약속」 손잡은 한국」제하의 “투명사회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과 사회 각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약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아 ‘약속의 띠’를 만들고 있다”는 사진과 함께 보도된 기사가 이를 뒷받침하여 그 길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리도 선진외국에서도 같이 퇴임한 대통령이 국민의 존경을 받고 국민과 고난을 함께하는 ‘성공한 대통령’을 국민들은 하나 같이 이를 갈구하며 소망하고 있

는 것이다. 성형외과를 찾는 장년들이여! 얼굴은 거울이니 누구나 거울을 보듯이 항상 자기의 觀形察色을 잘 살펴, 필요하다면 성형수술도 하여 좋은 인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지어다. 먼저 外貌도 잘 가꾸어 다듬고, 內貌도 鍊磨陶冶하여 ‘新 身言書判’의 개발로 조직과 나라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바라는 것이다. 경찰을 떠난 경우회원님들이여! 재직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술한 고생과 사건현장을 뛰면서 굳어진 우리들의 얼굴에 남아 있는 그 고난의 훈장을 지우는데 어떤 성형수술로 가능하겠는가? ‘성형수술 신드롬’은 장년들의 이야기로 그들의 뜻이니, 부질없는 생각이란 점고 觀形察色에 유의하면서 세상을 達觀한 선인들을 닮는 모습이 되고자 우리 모두 表情管理에 노력하면서 여생을 보낼시다.

10년간 태극기 무료 보급 운동

— 김유평 여수해경 경우회장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태극기 보급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직시절 여수, 목포, 부산 등지에서 해경서장을 역임하고 여수에서 (주)한려한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유평 여수해경 경우회장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결성한 「한려사랑」이란 모임을 통해 무료 태극기 보급 운동에 앞장서고 있어 봉사하는 警友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평소 사업관계로 외국을 드나들며 낮은 미국 땅에서 접하게 되는 태극기가 주는 벽찬 감동과 자부심을 느낀 것이 태극기 보급운동을 펼치게 된 계기』라는 김 회장. 김 회장은 회사 창설 당시부터 자신의 지원금과 직원들의 적립금으로 기금을 모아 매년 3.1절과 8.15 광복절 등 2백 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97년부터 광양항 작업현장의 무상 방역 및 부두작업중 비산된 원료를 수거해 재활용케 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경우회의 정체성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김 회장. 『앞으로 여건이 되면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독도에도 태극기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專門醫에 듣는다

지긋지긋한 중년의 어깨 고질병, 오십견



윤준식 교수 <고려대 구로병원 재활외과>

오십견이란 말 그대로 50세가 되어 팔다리가 주시고 아프고 해서 움직일 수 없어 붙여진 병명이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70대를 웃도는 요즘 오십견을 단지 노화현상으로 넘겨버리고 체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십견은 항상 같은 움직임을 반복하는 주부나 컴퓨터 작업이 많은 직장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요즘은 ‘삼십견·사십견·이라’는 말이 새로 생겨나듯 30, 40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한 오십견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오십견이란 어깨주위에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통증과 함께 굳어서 팔을 마음대로 들거나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어깨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가 매우 불편하며 심한 통증이 특징인데 아픈 어깨쪽으로 누워 잠을 잘 수도 없으며 머리를 빚는 등 일상생활의 가벼운 동작에서도 심한 통증을 느낀다. 오십견은 어깨의 관절낭이 노화되면서 염증을 일으켜 유착되고 통증이 심해지는 것으로 염증이 심하면 관절낭이 섬유성 변화를 일으키고 굳게 되어 잘 움직일 수 없고, 굳은 관절 자체가 다시 통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 왜 어깨에 생기는가? 어깨는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넓다. 두 팔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평소엔 얼마나 많이 사용하든지 알 수 있다. 옷을 입거나 머리를 빚을 때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을 의심해봐야 한다. 특히 40~60대 사이의 여성, 당뇨병, 갑상선 질환, 어깨 관절에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발생한다. 통증과 혈관 근육의 경련이 발생하고, 나아가 섬유화가 진행된다. 결국에는 관절이 굳어져 전혀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 ▲ 치료법 크게 운동치료와 약물·주사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흔히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치료의 경우 어깨 결림과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의식적으로 어깨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3개월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증상이 좋아진다. 그러나 좋아졌다고 해서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므로 통증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팔 운동이 가능해진 후에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깨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근육을 자주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통증이 심한 경우는 진통 소염제, 스테로이드제제, 근육이완제 등의 약물·주사치료를 한다. 요즘은 초음파를 이용해 어깨의 염증부분을 직접 관찰하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이 방법은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실시하면서 환자의 염증부위를 모니터상에서 확인하면서 통증부위에 정확히 주사하므로 기존의 경험에 의한 시술보다 성공률이 높다.

한 때 사람들이 모이면 성형수술이야기가 화두로 되었다. ‘성형수술 신드롬’으로 장년층 남성들의 성형외과를 찾는 숫자가 많고 수술도 늘어나고 있었다. 여태까지 얼굴성형은 여성의 전유물로 알았는데 그렇다면 남성들에게도 전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성형외과가 이미 호황을 누리고 있던 터에 이런 신드롬에 합입어 앞으로 주요 가로면 길목에 성형수술 간판이 늘어날 것만 같다. 하기가 요즘은 기업체 안에서도 살벌한 경쟁의식의 확산과 조기퇴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內貌에 앞서 外貌가 중요시되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등용하는 시험에서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던 ‘身言書判’에 몸가짐(體貌)을 말해, 글씨, 판단의 앞자리에 두었던 것은, 그 당시에 도 우선 외모를 먼저 꼽은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해가 된다. 지금은 개성시대라고 하여 갖가지 복장을 하고 다니지만 그래도 직장인들은 단정한 외모와 풍기는 첫인상이 좋아야 고객관리와 그 조직의 이미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임으로 그 곳에서 나오되지 않고 버티며 진취적 발전을 위해서는 체모와 표정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 이러한 ‘성형수술신드롬’의 기저에는 아마도 대통령의 눈꺼풀 수술과도 무관치 않는 것 같다. 지난 설날 연휴 때 대통령의 눈꺼풀 수술과 이어 영부인도 쌍꺼풀 수술을 하여 화제가 되었고, 수술에 관련한 청와대 대변인의 언론발표까지 있었으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눈 수술로 한동안 공식석상에 나오시지 않다가 3.1절 기념식행사에 참석하였고, 이 때 방영되는 TV 앞에서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시청자들은 화면에 나오는 대통령의 모습과 눈을 쳐다보